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끼여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질어서 ㉠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해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해인 현금이 맞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훑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었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불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거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 잠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멧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② ㉡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③ ㉢는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④ ㉣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⑤ ㉤는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②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 읽기 전 활동

〈보기〉가 주어지 있지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보기〉인지 문제를 푸는 데에 사용하는 〈보기〉인지 애매합니다. 우선 작품을 읽은 후에 문제를 풀면서 〈보기〉 내용을 작품 속에 대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草坪)이 남아 있는 이 성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렁던 길이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멩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병일’에 대한 이야기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병일’은 신흥 상공 도시의 공장 지대에서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공간은 도시의 발전도 있지만, 옛 성문도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과거의 것들이 사라지고 현대 문물로 발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꺼멓게 멩들기 시작한 이 거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매연으로 인해 짙어지는 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병일’이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부정적으로 묘사할 이유가 없겠죠?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時在)를 막아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헤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헤인 현금이 맞아야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 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 들고 사무실 문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는 것이었다.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훑치고, 손님에게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을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벌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 속 깊이 빨아 들이켜며,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였다. 현금이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 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 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이라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온 것이였다.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 얼마 동안은 신원 보증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미더운 자기를 그래도 써 주는 주인의 호의를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겼다. 그다음 얼마 동안은 병일이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담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병일’은 취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병일’의 신원이 보장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게 주인은 ‘병일’이 장부에 적은 돈과 자신이 센 돈이 일치해야 하루 일과를 종료합니다. 또 ‘병일’이 가게에서 나서자마자 주인은 사무실 문을 잠가 버리죠. 주인은 ‘병일’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병일’은 처음에는 신원이 보증되지 않은 자기를 써 주는 주인에게 고마웠지만, 점차 자기를 계속 감시하고 못 미더워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갖게 됩니다.

(중략)

근자에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후원에서 성낸 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푸른 이끼 돋친 바위를 붙안고 이마를 부딪치는 것을 상상하고 작은 신음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는 몸서리를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다.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발호하여서 풍겨 오는 문학의 자극에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하였다.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고 중얼거렸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즈음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에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였다.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히 뛰어오르는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꺼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병일’은 월급을 받아 하숙비를 제외하고 책을 사들였으나 붓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책들이 짐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주인을 보며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활자와의 생활을 좋아했던 ‘병일’이지만, 점차 그 생활에 피로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또 ‘병일’은 원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성문을 바라보았지만, 요즘에는 성문도 지나치는 모습입니다. ‘병일’의 삶이 확실히 피로해졌고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병일’의 하숙방은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가 나고,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그런 공간이에요. 집이라면 편안하고 아늑해야 하는데, ‘병일’이 사는 집은 그러지 못합니다. ‘병일’의 거주 환경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하숙방에서 책을 읽을 용기가 더 이상 없어진 ‘병일’은, 사진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피로한 현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사도 병일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술과 한담이 있었다.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 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위점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퍼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꾸 마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 최명익, 「비 오는 길」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렇게 사진관으로 간 ‘병일’입니다. 사진사도 ‘병일’을 환영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술과 한담이 있었습니다. ‘병일’은 이런 경험이 없었지만, 자기도 술을 적잖게 마실 수 있고 한담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간 피로한 삶을 살다가 이런 경험을 처음 경험하고 만족하는 병일의 모습입니다. ‘병일’에게 있어서 일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면서 ‘병일’은 자기를 기다릴 듯한 책을 생각하지만, 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술과 한담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온 ‘병일’은 ‘이것이 무슨 것이냐!’는 반성을 장마의 탓이라며 핑계대고 있습니다. 일탈 행위를 장마의 탓으로 돌리는 ‘병일’의 모습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병일’은 책을 읽는 삶과 일탈 행동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인 것이죠. 책을 읽고 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일탈을 하니 만족스러웠고 그것을 장마에 핑계대고 있습니다. 활자와 가까운 삶과 술과 한담을 즐기는 삶을 두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병일’의 모습입니다. 내적 갈등이 꼭 두 가지를 두고 싸우거나 하는 것만이 갈등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가치관을 두고 고민하는 등의 모습도 내적 갈등으로 볼 수 있어요.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자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작품 속에서 풍자적 어조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도 않아요.

② 상황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작품 서술이 ‘병일’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두고 내적 갈등을 겪는 상황 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③ 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다.

→ 비극적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④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1문단에는 도시에 대한 묘사는 등장하지만 자연에 대한 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⑤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인물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 장면 전환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인물들 간에 긴장감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꺼멧게 멧들기 시작한 이 거리

㉡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

㉢ 장마

㉣ 누각

㉤ 코 고는 소리

① ㉠은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하고 있다.

→ ㉠은 도시의 발전 때문에 매연에 질어지는 거리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② ㉡는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이다.

→ 소사와 급사와 서사의 일은 '병일'이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③ ㉢는 피곤한 '병일'에게 지루함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마다 지루한 장마는 언제 끝나냐며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④ ㉣는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 '병일'은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간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며 성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 '나의 시간'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문을 바라본 것이지, ㉣에서 '나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⑤ ㉤는 '병일'의 휴식을 방해하는 상상의 소리이다.

→ 사진관에서 돌아온 '병일'은 ㉤가 들리는 듯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병일'의 상상의 소리입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개인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면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소망이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개인은 불안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등과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 또한 드러냅니다. 이 내용을 '병일'에 대입해봅시다. 병일은 신원 보증인이 없어 주인에게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삶에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 증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책을 열심히 보려고 하지만, 그것에도 피로를 느껴 사진관을 찾아가게 되고 사진관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보기> 내용과 본문 내용을 잘 연결시킨 후에, 문제를 풀어 봅시다.

㉦ 2년 내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원 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었다
㉧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병일에도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꼈던 것이었다
㉨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요즈음에는 무거운 짐같이 여겼다
㉪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① ㉦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병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군.

→ '병일'은 신원 보증인을 2년이 되도록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계속 감시받는 삶을 살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병일'의 모습이에요. 이에 주인에게 원망과 반감을 가진 '병일'은 신원 보증인을 구하려고 궁리하게 됩니다.

② ㉧은 자신이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예이군.

→ '병일'의 신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병일'을 꾸준히 감시합니다. 그에 대해 '병일'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병일'의 심리적 불안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일'이 타인의 세속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병일'은 활자와 인연 없이 살아가는 주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에서는 자신이 몰두하던 세계에서 '병일'이 더 이상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병일'은 월급에서 하숙비를 빼고 다 책을 살 정도로 책을 읽는 것에 몰두하던 인물이지만, 요즘에는 그것들이 짐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⑤ ㉪에서는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이 부분은 사진사와 술과 한담을 즐기다가 자기를 기다리는 책에 대해 생각하지만, 송구한 마음을 접어두는 '병일'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이 오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사진관은 삶에 지친 '병일'이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곳이다.

→ '하숙방'은 벼룩이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고독한 공간입니다. '병일'은 이곳에서 활자와 마주할 수 있어요.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관은 삶에 피로를 느낀 '병일'이 술과 한담을 주고 받는 곳입니다. 일시적으로 도피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하숙방은 '병일'이 '니체'에 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이고, 사진관은 '사진사'에 대한 '병일'의 동정이 드러나는 곳이다.

→ '병일'이 '니체'에 대한 상상을 하였던 곳은 사무실입니다. 하숙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일'은 '사진사'에 대해 동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③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는 곳이다.

→ 하숙방에서 '병일'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진관은 '병일'에게 위안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피로를 느낀 '병일'이 사진관에 가서 잠시나마 만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④ 하숙방은 '주인'의 감시가 계속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곳이다.

→ '주인'은 가게에서 '병일'을 감시하지 하숙방에서까지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사진관은 '병일'이 이전에 해 보지 못한 일탈적 경험을 해보게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하숙방은 '병일'이 '고역'을 지속하는 곳이고, 사진관은 '병일'이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곳이다.

→ '병일'은 일을 하면서 '고역'을 겪고 있지, 하숙방에서까지 '고역'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병일'은 사진관에서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지 않습니다.